

건강누리 의왕시립 노인요양원

10주년 소식





표지이야기

입소어르신 작품 '꽃다발 꾸미기'

건강누리 의왕시립 노인요양원

10주년 소식

발행일 2021년 6월

발행처 건강누리 의왕시립 노인요양원

발행인 윤정오

주소 경기도 의왕시 오전로27

전화 031. 451. 2103

팩스 031. 451. 8103

홈페이지 www.carenuri.or.kr

인쇄 (주)일곰



2 0 2 1 S U M M E R C O N T E N S

기념사	04
축사	05
인사글	06
노인에게 배우는 삶의 자세	07
다시 처음처럼...	08
소중한 마음을 배웁니다	09
건강누리 4행시	10
서비스 안내	11
고마움을 전합니다	12
자원봉사♡프로그램	14
고마운 이웃	17
기관소개	18
오시는 길	20

기념사

건강누리 의왕시립 노인요양원이 설립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전 계요의료재단은 의왕시로부터 요양원의 운영을 수탁 받아 수저 한 개부터 현재의 모든 시설과 돌봄 시스템을 하나하나 갖추어 가며 의왕시의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요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실로 지역사회를 대표하고 누구나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하는 의왕시 어르신들의 생활시설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평가에서 연속 최우수(A등급) 평가를 받는 등 모범적인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요양원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까지 애써주신 역대 원장님들과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요양원의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잘 모실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며 돌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님들, 사회복지사님들, 간호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좋은' 요양원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어르신들과 직원들을 출산해서 섬기시는 원장님과 국장님의 리더십의 결실로 우리 요양원이 계속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을 사랑하시는 시장님의 끊임없는 격려와 많은 자원봉사자님들의 열성적인 봉사과 섬김을 필두로 한 의왕시의 끊임없는 관심과 도움 또한 지금의 요양원을 있게 한 원동력이기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고, 방역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이 만만치 않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건강누리 의왕시립 노인요양원은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앞으로도 어르신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을 다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저희 재단도 요양원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더욱 발전하는 미래의 건강누리 의왕시립 노인요양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건강누리 의왕시립 노인요양원의 모든 직원과 어르신들께 개원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법인 계요의료재단 이사장 이 경 은

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왕시장 김상돈입니다.



2021년 6월 1일 건강누리 노인요양원의 개원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미 있는 날을 맞이하여 따뜻하고 뜻깊은 기념행사를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지면을 통해 축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게 되어 매우 아쉬운 마음입니다.

건강누리 노인요양원은 2011년 개원 이래 10년간 변함없이 세심한 도움이 필요하신 여러 어르신들의 소중한 생활공간이자 쉼터가 되어왔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꼼꼼한 방역체계 유지와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주신 윤정오 원장님을 비롯한 65명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누리 노인요양원이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고, 어르신과 보호자분들의 신뢰와 칭찬을 받는 노인복지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요양원의 환경개선과 의료복지 서비스 보강에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왕시장 김 상 돈

인사글

10년, 420명의 어르신을 향한 섬김



2021년 6월 1일 건강누리 의왕시립 노인요양원은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 동안 우리 건강누리는 오늘까지 420명의 어르신을 정성으로 섬기며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시설로 성장하였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 지역에서 노인요양시설은 가족을 대신하는 새로운 형태의 효자 노릇을 하며, 가족 간 화목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일등공신입니다.

만성적인 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께,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거주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가족들이 안심하시는 요양원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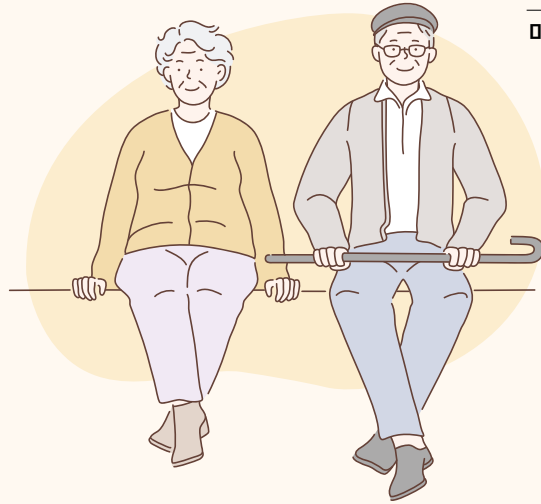
앞으로도 어르신 개별 특성에 대한 이해와 케어기술 습득을 통한 직원의 역량 강화로 건강누리에 대한 가족의 기대감을 채워드리고, 어르신과 직원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지내시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건강누리 의왕시립 노인요양원과 10년의 발자취를 함께해 주신 자원봉사자, 후원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건강누리 의왕시립 노인요양원 원장 **윤 정 오**



노인에게 배우는 삶의 자세



글.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박용순

최근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이 되면 누구든지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당면 문제인 4고(苦), 즉 병고(病苦), 빈고(貧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를 겪게 된다. **노인들은 그동안 긴 삶의 여정에서 파란만장한 인생의 굴곡인 존엄한 삶과 죽음, 나이 들과 고통, 사랑과 용서 등을 경험하며 살아왔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노화라는 신체적 변화를 겪으면서 노인이 된다.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노년이 되어 본의 아니게 낯선 요양시설에서 머물고 있는 치매 어르신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된다. 특히 어르신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한편 노인들의 삶의 과정에서 터득해 온 많은 배울 점이 있다고 본다. 여기서 우리들도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며, 올바른 삶의 자세와 겸허한 태도를 가져 보는 기회를 삼고자 한다.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한 어부인 노인이 불운과 역경에 맞선 숭고하고 인간적인 내면을 볼 수 있다. 즉, 망망한 바다에서 거대한 물고기와 사투를 벌이다가 뼈만 남은 잔해를 끌고 돌아오는 노인의 짧은 이야기는 노인의 원숙한 인간성을 알 수 있다. 즉,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용기와 믿음, 끈기와 인내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삶의 자세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고난과 예기치 못한 상황이 직면하더라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극복할 수 있다는 힘을 가져야 한다.

노마지도(老馬知途)라는 말이 있다. 즉, 늙은 말이 갈 길을 안다는 뜻으로서 연륜이 깊으면 나름의 장점과 특기가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한 아이와 할아버지의 이야기이다. 아이는 시각장애아로서 연약하여 모두가 곧 죽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할아버지에게 ‘푸른 말의 힘’에 한 이야기를 듣고 어디선가 푸른 말이 달려온다는 그 기운으로 아이는 생기를 찾아가게 된다. 점차 아이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할아버지한테 들어가며 자란다. 결국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말타기 경주도 할 수 있는 어엿한 소년으로 성장했다는 내용이다.

이상에서 노인들에게 배워야 할 삶의 자세를 새롭게 정립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에서 많은 지혜를 터득해 왔고, 열정적으로 자신의 일을 추구해 왔으며 의지와 끈기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한 모습들이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다. 한마디로 한 노인이 빚어낸 기적, ‘이야기의 힘’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예비하고 진정한 삶의 길을 모색해 주는 지침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노인들은 새로운 어른으로서 차세대**를 위해 **지침이 되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선배 시민의 모델이 된다고 본다.**

이제 우리는 지혜로운 노인의 모습을 통해서 겸허한 자세로 노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다시 처음처럼...

글. 생활팀 팀장 사회복지사 이유 빈



대학교를 졸업하고 장기요양 분야를 택했을 때 “요양원? 거기는 죽으러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곳 아니야?”라는 말을 주변에서 주문처럼 들었다. 손녀 사랑이 끔찍한 할아버지께서도 요양원의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왜 하필 그곳이냐”라며 걱정을 하셨다. 그렇게 모두가 반대했던 일을 나는 선택했었다.

주위의 걱정 어린 시선에도 옆에서 묵묵히 응원하고 격려해 주신 부모님이 내겐 큰 에너지였다. 사회의 어느 한 분야에서 꼭 필요한 소금의 역할을 해 내라고 격려해 주셨으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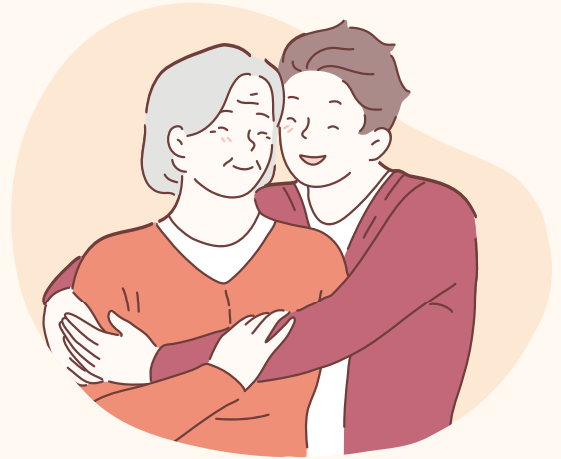
장기요양 서비스가 실시되고, 우리 주변에 많은 시설들이 생겼지만 여전히 요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만연하다. 오로지 ‘어르신들을 더욱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는 새내기 마음으로 졸업 후 바로 요양원으로 입사해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웠지만,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했다. 대학 동기들 중 아동, 청소년 분야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시간이 지난 후 아이들이 성장해서 찾아오거나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럽기도 했다. 요양원에 근무하는 나에게 몇 년 후는 기약할 수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병이 악화되어 병원으로 가시거나 하늘나라 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무기력함까지 없어져 퇴사를 생각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그 즈음 한 어르신의 보호자의 연락을 받았다. 평소 나를 아끼고 예뻐해 주셨던 어르신이 며칠 전 지병으로 사망하셨다는 연락이었다. “저희 엄마가 선생님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덕분에 엄마가 행복한 기억만 가지고 가셨어요. 꼭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 주셨다. 전화를 끊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심신이 소진되어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던 요양원에서의 시간들이 어르신들께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기억된다는 것을 생각하니 멈춰있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고집했던 길에 대한 보람으로 그동안의 고민을 가볍게 날려 보냈다. 내 작은 손짓 하나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르신들의 마지막 기억까지 연결되고 있었음을 알아차리자 새로운 책임감과 소명감이 생겨났다.**

그렇게 다시 마음을 잡고 요양원으로 돌아와 근무를 하던 중 지금의 건강누리 의왕시립 노인요양원에 연이 닿아 근무를 하게 되었다. 건강누리에 근무를 하면서 원장님의 주도 하에 모든 직원들이 어르신들께서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으며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다. ‘어르신들의 인권을 소중히 생각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시설이 과연 몇이나 될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치매와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을 병리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강점을 찾아 어르신들마다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것 같았던 케어가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보호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10년간 신뢰받는 시설의 일원으로서 어르신들의 마지막을 행복하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채워드릴 수 있음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기에 앞으로 펼쳐질 건강누리 의왕시립 노인요양원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할 시간들이 기대된다. 그리고 이제까지 쌓았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정성을 다해 어르신들께 진정으로 편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오늘도 다짐한다.

소중한 마음을 배웁니다

글. 사회복지무원 박종현



저는 소집해제까지 7개월 정도 남은 노인요양원 사회복지무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요양원은 제가 복무지를 선택할 당시에도 경쟁률이 제일 낮을 정도로 선호되는 복무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과거, 제가 근무지로 이곳을 택한 것은 정말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근무 분위기도 좋거나 와 일을 하다 보면 몸소 깨닫는 것들이 많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대부분이 치매질환을 앓고 계시고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어르신들을 아파게 하는 것은 가족들을 자주 보지 못한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떨어져서 지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이를 더 안타깝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 상 보호자님들을 주로 상대하고 면회 안내를 해드리는데, 면회를 한다고 해도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손조차 잡지 못하고 헤어지십니다. 때때로 보호자님이나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실 때는 가족은 아니지만 그 마음이 느껴져서 저도 슬퍼지고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 직접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회할 때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얼른 가라”입니다. 한 번은 어르신을 생활실로 모시면서 “가족분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 왜 얼른 가라고 그러세요.”라고 여쭙봤더니 “보고 싶지...”라고 대답하시는 걸 보고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저런 마음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우리들은 다양한 이유들로 가족, 부모님과의 시간을 우선순위에서 미뤄놓고는 합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 근무하면서 지금 내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각인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쯤에서 글을 줄일까 싶었지만, 요양보호사님들에 대해서도 감사와 존경의 말을 전하고자 몇 자 더 적어봅니다. 요양원 식구들 모두가 수고하시지만, 그중에서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치매 어르신들을 모시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직접 겪어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죠.

생활실에 올라가면 선생님들은 항상 분주합니다. 치매 어르신 특성상 손도 많이 가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무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높은 업무 강도에 웃음을 잃으실 수도 있는데, 어르신들에게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시고 제가 생활실에 방문하면 항상 밝게 인사하며 맞아주십니다.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돈을 많이 버는 일은 아니지만 정말 멋진 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누리 4행시

건 건강이
강 강물처럼 흐르는 세월에
 떠내려가도
누 누릴 수 있는 질 높은 삶은
리 리얼한 건강누리 휴머니티드
 케어로 가능합니다.
 - 생활팀 조미숙

건 건강한 밥상을 정성 가득
 차려드리고 싶어요.
강 강직한 어르신과 선생님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누 누리세요~ 아름답고 건강한
 백세 인생을 건강누리에서
리 리어카에 코로나19를 가득 담아
 지구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어요.
 평온한 일상이 그림습니다.
 - 영양팀 양현숙

건 건강한 마음과 온유하고
 애뜻한 사랑으로
강 강한 책임감을 갖고 어르신을 위한
 휴먼케어를 우리 건강누리에서는
 실천합니다.
누 누구나 어르신들을 향한
 사랑과 마음을 담아 정성껏 케어하는
 건강누리 노인요양원!
리 이리 오세요~
 사랑 가득한 건강누리로♥
 - 생활팀 서정순

건 건강누리 의왕시립 노인요양원이
 개원 10주년이 되었네요.
강 강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모십니다.
누 누리세요... 구구팔팔 백세시대
리 이곳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세요.
 - 생활팀 최진선

건 건초처럼 마르고 힘없는 다리
강 강둑이랑 산과 들을
 뛰어 다닐 때가 옛것제 같은데...
누 누구 거기 없소???
리 리어카나 소달구지 같이 타고
 복사꽃 붉게 물든
 그리운 내 고향집에
 한번 댕겨옵시다!!!
 - 간호팀 이남숙

휴먼 케어 실천



웃는 얼굴로
눈 맞추기



부드럽게
대화하기



따뜻한
스킨십 나누기



주의 집중하기
(사고예방)

우리의
다짐

마음까지 살피 드리겠습니다!

주요
서비스



요양 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의사소통 도움,
위생 및 생활 환경 관리



재활 / 복지

기능회복 훈련,
여가·정서·치매 인지
프로그램 제공



간호 / 영양

입소어르신
건강 및 간호 관리,
영양 관리

복지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께 즐거운 일상을 선사
지남력, 집중력, 기억력과 문제 해결력 등
특정한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초.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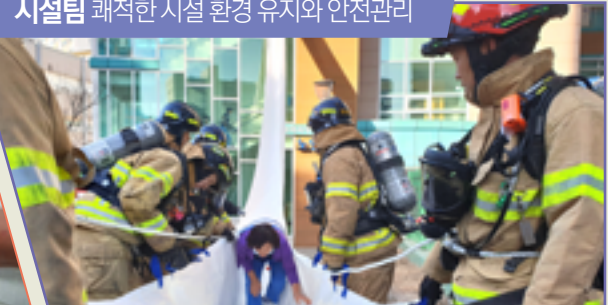
▲ **간호팀** 활력징후 관찰 등
체계적인 건강상태 관리와
질환별 연계 의료서비스
및 감염 관리

재활팀 개인 운동치료를 통한
재활 및 통증관리
다양한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
의 신체적 잔존기능의 유지 및 강화



시설팀 쾌적한 시설 환경 유지와 안전관리

생활팀 일상생활 도움 및 개
인위생관리, 어르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유지



▲ **영양팀** 급식 및 영양 관리

행정팀 사업 보조 및 행정 지원



감사의 마음을 전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건강누리 노인요양원에 계십니다. 요양원에 모시기 전에 가족들은 많은 고민 끝에 시립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요양원은 전화상담만으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자식으로서 조금 나은 요양원에 모시고 싶어 여기 저기 많은 요양원과 통화를 하면서 전화상담만으로도 제일 신뢰가 가는 건강누리 노인요양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는 첫날, 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아시는지 원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직원분들이 주차장에 나오셔서 어머니와 가족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가족들의 마음이 참으로 뭉클하여 애뜻함은 마음속으로 새길 수 있었습니다.

첫날 원장님과 각 부서의 팀장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관계자분들이 모여 자세한 설명과 함께 어머니에 대한 많은 부분을 메모하면서 하나하나 귀담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써 주는 요양원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직원 한 분 한 분의 정성이 느껴져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자식들의 마음이 순간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힘들지 않은 분들이 없겠지만 특히 요양원에 계신 직원분들의 노고에 존경의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창문 면회를 통해 어머니를 뵈기도 하였지만, 순간순간 요양원에 직원분들의 노고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는 모습에 가족으로써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족보다 더 가족같이 돌봄을 실천하고 계시는 건강누리 노인요양원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꼭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왕시를 대표하고도 남을 노인요양원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음식을 씹을 수 없는 어르신들께는 모든 음식을 갈아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지병이 있으신 어머니의 상황을 세심하게 보시고 긴급하게 연락해 주시는 등 저희들이 집에 모실 때보다 살이 더 찌시고 집이라고 표현하실 만큼 요양원을 편하게 생각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가족들에게 연락하고 보여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이번에는 밴드까지 개설하여 가족들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모습에 제가 의왕시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훌륭한 노인요양원이 의왕시에 있다는 걸 많은 사람에게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코로나로 인해 누구보다 더 힘들었을 건강누리 노인요양원에 계시는 직원분들 한 분 한 분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예의지만, 이렇게 지면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누리오양원 원장님이하 임직원과,
오양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덕분에 안심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 건강누리오양원 식구들
시원한 콩국수?라도 한 그릇하시고 힘내시라고
이번에 받은 재난지원금을 담아드립니다.

계속 되는 코로나에 모두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오양원 보호자드림

Thank
YOU

늘 정성으로
어려남을 돌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건강누리 보호자

안녕하세요!

이르신들을 향한 선생님들의 사랑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백나무에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문양을
선생님들께 진짜로 뜻이 신주로 표현하였습시다.

핸드폰의 종류가 너무 많아 일일이 구경은 맞출수가
없이 천만관 종류에 있는 가격으로 만원이지만
취미 맞지 않는 분은 핸드폰을 잃고 나서 사용하려는
새만 경험하고 사용하세요 됩니다.

수직으로 만든 가격에 부족한 부분이 보일지라도
저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들께 다시한번 더 고마움을 이 자리에
남기며 진정하게 추천드립니다.

- [이름] 가족 올림 -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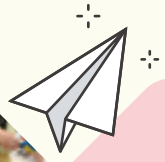
자원봉사♥프로그램



호사랑 봉사단
주 1회 노래교실



토달공예
월 2회 종이접기



한소리에술단
월 1회 신바람 체조



사랑나눔 & 아코디언 동아리
주 1회 노래교실



용달샘 & 실버품바 봉사단
주 1회 노래교실 봉사 및 월 1회 춤, 공연



생명나무
월 4회 건강박수 및 구연동화



초심봉사단
월 1회 풍선 장식



**의왕시기독교연합회
의왕순복음교회**
주 1회 예배



**대한적십자
초평동 봉사회**
월 2회 이·미용



**의왕과천시지부
미용봉사단**
월 1회 이·미용



의왕여성대학 · 의왕도시공사 MOU
월 4회 미술심리치료
(미술아 놀자, 스케치북)



의왕시장애인체육회
주 1회 생활체조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반갑다 친구야 / 그림이야기)



왕곡성당(봉성체)
월 1회 봉성체

다시 시작하는 10년, 다시 바라보는 10년은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건강누리 가족 여러분 그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죠.
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안전한 가운데 매주 월요일마다 방문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매일 그곳에 거하시는 모든 직원들과 입소하여 거하시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건강누리 개원 10주년을 맞아 축하와 축복의 인사 말씀을 올리게 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여러모로 어려움 중에서 건강누리 노인요양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 10년 세월을 지원하시는 계요병원 법인에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되는 상황에서 건강누리의 안전함과 평안한 생활을 위해 힘쓰고 애쓰신 모든 직원분께 격려와 축하를 보내드립니다.

다시 시작하는 10년, 다시 바라보는 10년은 더 많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건강누리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나온 한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안타까움과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며 성실함으로 주어진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신다면 내년 이날에는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힘내시고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마운 이웃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10년을 함께했고, 10년을 이어갈
고마운 이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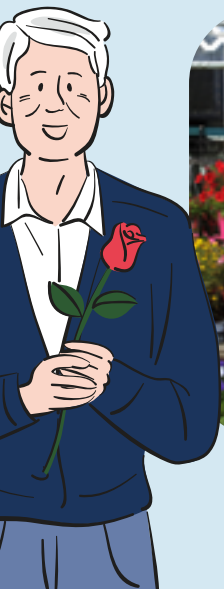
파리바게트 의왕산안점
고려 이철재
님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건강누리노년사랑회



IBK기업은행 의왕지점
고려 이철재
님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건강누리노년사랑회



명장시대
고려 이철재
님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건강누리노년사랑회



꽃마루농원
고려 이철재
님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건강누리노년사랑회



삼성의료기상사
고려 이철재
님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건강누리노년사랑회



시설현황

- 운영법인: 의료법인 계요의료재단(이사장 이경은)
- 시설장: 윤정오 원장
- 수탁기간: 2017. 5. 1 ~ 2022. 4. 30(5년)
- 규모: 대지면적 4,679.7㎡, 연면적 4,982.49㎡(지하1층, 지상 4층)
- 정원: 99명(3인 27실, 4인 4실, 2인 2실, 총 99침상)
- 준공일: 2011. 5. 9
- 개원일: 2011. 6. 1



층별	면적(㎡)	용도
계	3,246.77	총 연면적 4,982.49㎡ 중 장애인 복지관 전용면적(1735.72㎡) 제외
지하1층	98.6	시설관리실, 문서보관실, 엘리베이터실, 세탁실
지상	1층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자원봉사자실, 상담실, 주방, 식당, 사무실
	2층	생활실(3인실 9실, 4인실 2실), 목욕실, 탈의실, 거실, 간호사실, 직원휴게실
	3층	생활실(3인실 9실, 4인실 1실, 2인실 1실), 목욕실, 탈의실, 특별실, 면회실, 거실
	4층	생활실(3인실 9실, 4인실 1실, 2인실 1실), 목욕실, 탈의실, 면회실, 거실
공용면적	735.29	기계실, 전기실, 방재실

입소자 현황 현원 : 98명 (2021. 6. 24 현재)

[연령별]

계	69세 이하	70 ~74세	75 ~79세	80 ~84세	85 ~89세	90세 이상
98	4	3	9	37	21	24

[등급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5등급 포함)	기타
98	9	20	69	-

[자격구분별]

계	기초	의료경감 8%	경감		일반	남	여
			8%	12%			
98	11	-	24	10	53	16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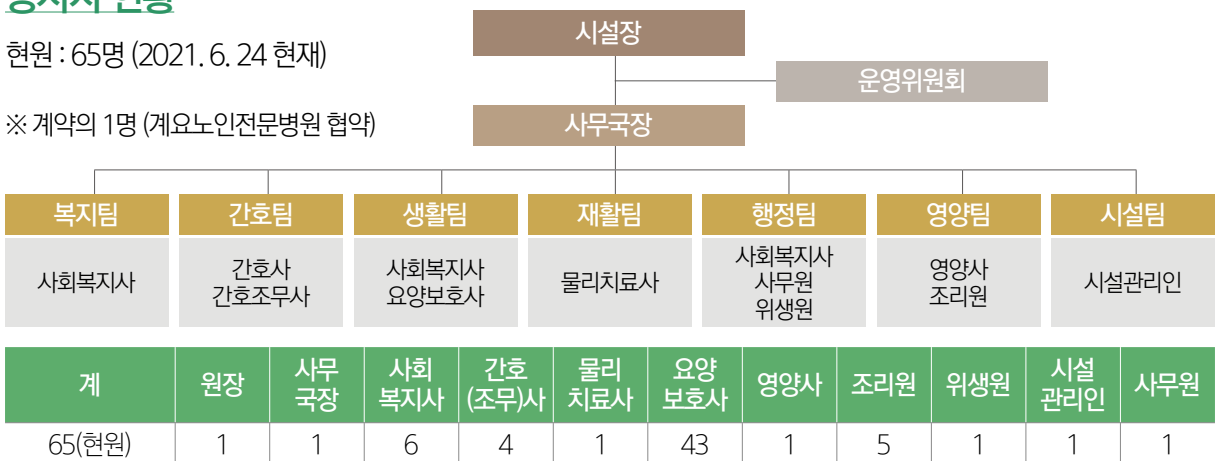
[입소기간별]

계	1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98	37	42	11	8

종사자 현황

현원 : 65명 (2021. 6. 24 현재)

※ 계약의 1명 (계요노인전문병원 협약)





어르신 서비스제공 시간표

시간	제공 서비스	시간	제공 서비스
06:00~07:30	기상 및 개인위생, 아침식사 준비	13:00~14:00	개인휴식 및 건강체조
07:30~08:30	아침식사 및 투약, 구강 케어	14:00~17:00	재활치료, 인지 및 여가 프로그램
08:30~10:30	건강체조, 기본 건강체크	17:00~18:00	저녁식사 및 투약, 구강 케어
10:30~12:00	재활치료, 인지 및 여가 프로그램	18:00~20:00	자유시간(음악감상, TV시청 등)
12:00~13:00	점심식사 및 투약, 구강 케어	20:00~	투약 및 취침



입소안내

입소자격 의왕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장기요양 1, 2등급 또는 3~5등급(단, 시설급여를 받은 분) 해당자

입소정원 99명

입소절차

입소 신청

▶ 입소 상담

▶ 입소 결정

▶ 계약·입소

**입소서류
및
준비물**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 건강진단서(결핵, B형간염, 매독, 골다공증 등) - 입소전 1달 이내
- 의사소견서(현재 어르신 건강에 대한 소견)
- 주민등록등본(입소자, 보호자) • 신분증사본(입소자, 보호자) •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처방전 • 개인 의류 및 물품

* 대기 접수 시: ❶ 의왕시 주소 확인되는 등본(입소 예정자 주소)
❷ 시설급여 확인되는 장기요양인정서 ❸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월이용료

- 일반 입소자: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 + 비급여비용(식재료비+간식)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8% 또는 12% + 비급여비용(식재료비+간식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료[식대(1식 2,500원 * 3식) + 간식 1일 2,000원 = 1일 9,500원]

입소제한

- 전염병 질환자 또는 상시로 의료인의 처치가 필요한 경우
-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입소상담

031-451-2103 www.carenuri.or.kr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건강누리 의왕시립 노인요양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 나눔의 행복 농협301-0083-1736-51 건강누리 의왕시립 노인요양원

» 오시는 길



건강누리 의왕시립 노인요양원

경기도 의왕시 오전로27

Tel : 031-451-2103 Fax : 031-451-8103 www.carenuri.or.kr